ROLEX

950 플래티넘

뛰어난 광채

가장 고귀한 금속의 대명사인 플래티넘은 은빛이 감도는 화이트 컬러와 찬란한 광채가 돋보이는 금속이다. 고대 이집트인과 콜럼버스 이전 시대에 이미 플래티넘을 알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유럽에는 18세기에서야 알려진 금속이다. 플래티넘은 특이한 물리적 특성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가공 방법이 밝혀졌다.

남아프리카와 러시아 등 일부 한정된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플래티넘은 팔라듐, 로듐, 루테늄, 이리듐, 오스뮴 등과 더불어 백금속에 속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밀도가 높고 무거운 금속 중 하나이며, 탁월한 내부식성 등 독특한 화학적 및 물리적 특성을 자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성과 전성이 높은 부드러운 금속이라 기계 가공이나 폴리싱 작업이 매우 까다로운 소재이다. 롤렉스에서 플래티넘 브레슬릿과 케이스의 폴리싱 작업을 담당하는 장인들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플래티넘 폴리싱 기술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

보석과 특별한 광채

플래티넘에 현재의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것은 내부식성보다는 그 특별한 광채이다. 완성된 부품의 형태든 절반 정도 정련된 원재료의 형태든 플래티넘은 특유의 은백색 빛을 발산한다. 바로 그 탁월한 광채 덕분에 모든 보석의 눈부신 빛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귀금속 소재로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롤렉스에서 사용하는 950 플래티넘은 플래티넘(950‰)과 루테늄의 합금이다. 플래티넘은 특히 롤렉스 오이스터 컬렉션의 가장 품격 높은 모델인 Day-Date 에 사용된다. 안목 있는 고객들은 아이스 블루 다이얼의 Day-Date 와 Daytona 를 보는 순간 이 모델들이 플래티넘 소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금새 알아차린다. Yacht-Master 롤레지움 버전의 눈금을 새긴 베젤과 다이얼, 그리고 Yacht-Master II 18 캐럿 화이트 골드 버전의 베젤에도 플래티넘이 사용된다. 오이스터스틸 Oystersteel 및 18 캐럿 화이트 골드로 제작된 모노블록 세라크롬 Cerachrom 베젤이나 세라크롬 베젤 인서트의 숫자, 눈금, 표식에도 플래티넘이 PVD 공법으로 코팅된다.

유구한 역사

서구에서는 비교적 최근인 19 세기부터 먼저 주얼리에, 그리고 이후 워치메이킹에 플래티넘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플래티넘은 매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금속이다. 고대 이집트인들과

콜럼버스 시대 이전의 원주민들이 플래티넘을 이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러나 플래티넘의 가치는 그로부터 수 세기 후에 의해 재발견된다.

플래티넘은 '소량의 은'이라는 의미의 스페인어 'platina'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17 세기경 남미에서 이 낯선 은빛 금속을 발견한 스페인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다. 이 금속의 진정한 가치를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었다.

그로부터 한 세기 후 유럽에 전해진 플래티넘은 그 독특한 화학적 및 물리적 특성 덕분에 금방 과학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순도 높은 순수한 플래티넘의 추출은 19 세기 초반에 이르러서야 가능했다. 섭씨 1,700 도가 넘는 높은 용해점 때문에 19 세기 말에 가서야 복잡한 가공 기술이 개발되었고, 그 후로 플래티넘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주얼리와 워치메이킹 분야에서 각광받는 소재가 되었다.